논어 9편 자한 11장 · 원문·풀이

顏淵喟然歎曰：「仰之彌高，鑽之彌堅，瞻之在前，忽焉在後！夫子循循然善誘人：博我以文，約我以禮。欲罷不能，既竭吾才，如有所立卓爾，雖欲從之，末由也已！」

독음 · 안연위연탄왈 앙지미고 찬지미견 첨지재전 홀언재후 부자순순연선유인 박아이문 약아이례 욕파불능 기갈오재 여유소립탁이 수욕종지 말유야이

쉬운 풀이(요약) · 안회는 공자의 도가 높고 굳세어 따라가기 어렵지만, 문헌으로 넓히고 예로 절제하도록 차근차근 이끌어 그만둘 수 없다고 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顔 얼굴 안 / 淵 못 연 연 / 喟 한숨쉴 위 위 / 然 불사를 연 연

歎 탄식할 탄 탄 / 曰 가로 왈 / 仰 우러를 앙 앙 / 之 갈 지

彌 두루 미 미 / 高 높을 고 고 / 鑽 끌 찬 찬 / 堅 굳을 견 견

瞻 볼 첨 첨 / 在 있을 재 재 / 前 앞 전 전 / 忽 소흘히 할 홀 홀

焉 어찌 언 언 / 後 뒤 후 후 / 夫 지아비 부 부 / 子 아들 자

循 좇을 순 순 / 善 착할 선 선 / 誘 꾀일 유 유 / 人 사람 인

博 넓을 박 박 / 我 자기 아 아 / 以 써 이 이 / 文 무늬 문 문

約 대략 약 약 / 禮 예도 례 례 / 欲 욕심낼 욕 욕 / 罷 파할 파 파

不 아닐 불 / 能 능할 능 능 / 既 이미 기 / 竭 다할 갈 갈

吾 자기 오 오 / 才 재주 재 재 / 如 같을 여 여 / 有 있을 유

所 바 소 소 / 立 설 립 립 / 卓 높을 탁 탁 / 爾 너 이 이

雖 비록 수 수 / 從 좇을 종 종 / 末 끝 말 말 / 由 말미암을 유 유

也 어조사 야 / 已 이미 이 이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